

5/19(수) 다니엘 묵상 21

다니엘 5:1-9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벨사살은 그의 아들이자 바벨론의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는 약 3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30년에 동안의 바벨론 왕들의 기사가 없는 까닭은 성경은 일반 역사책과는 달리 모든 왕들의 기사를 모두 기록하지 않고 구속사와 관련된 내용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큰 잔치

본문 1절은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귀족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배설한 일로 시작합니다(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보통 잔치는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벌이는데 학자들은 이 잔치가 B.C. 539년 10월 중순경에 열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있던 날 밤에 메대에 의해 벨사살이 살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단 5:30-31,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욕심이 세였더라.”**). 그렇다면 이 잔치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에 배설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 벌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배경주석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잔치가 있기 전 며칠 동안 페르시아인들은 오피스 도성을 유혈 전투로 함락시킨 후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타쉬리투 열넷째 날에 십파르 도성을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포위했다. 바벨론은 이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며, 벨사살은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1068).” 이처럼 큰 위기가 엄습해 오는 상황 속에서도 벨사살과 귀족들은 교만함에 빠져 유희와 향락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벨사살 왕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서 탈취해 온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단 1: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단 5:2-3,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는 벨사살이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들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고 자축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음 구절이 증거합니다. 벨사살과 귀족들은 그들이 만든 신들에게 경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는 벨사살과 바벨론 귀족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벨사살과 귀족들은 그들의 신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 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가락

벨사살과 귀족들이 잔치에 흠뻑 취해 있던 그 때에 갑자기 사람의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다가 스스로 어떤 글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5절,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좃대 맞은 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과 귀족들은 놀라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왕은 두려움에 질려 바벨론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모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한 손가락이 왕궁 벽에다 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알아 맞추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8절, “**그 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이에 왕과 귀족들은 번민에 빠지고 두려움에 얼굴 빛이 사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벨사살이 이러한 사실을 놓고 다니엘을 즉시 부르지 않은 것은 벨사살은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두 번의 꿈과 해몽에 관한 사건과 세친구들에게 일어났던 풀무불의 기적같은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벨사살이 과거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경험을 교훈삼지 않게 됨으로써 또 다시 악한 교만 죄에 빠지게 된 것을 목상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통치 말년에 교만으로 인해 일곱 때 동안 짐승과 같은 상태로 지내게 된 것을 벨사살과 온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도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들의 그릇더기를 남겨 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돌아온 이후 회개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도 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벨사살 왕이 타락하고 교만하면서 바벨론은 끝내 화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남겨 주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와 교만 그리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그 안에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목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목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햄튼 5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베트남 우석정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